



희씨와 장모 관련 비리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비호해왔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범죄비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며, “본부장 의혹을 둘러싼 병역기피(부동시), 측근비리 부실수사, 허위학력, 허위경력, 주가조작, 세금체납, 잔고위조, 부정축재 등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라고 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각종 범죄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는데도 뻔뻔한 해명만 일삼고 있다. 지금이라도 몇몇하다면 자료를 공개해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소명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